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독도·해양법연구실	성명	박영길	직급	연구위원
	소속	독도·해양법연구실	성명	이서희	직급	전문연구원
	소속		성명		직급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주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행사 참가(발표) <input type="checkbox"/>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input type="checkbox"/> 세미나, 교육, 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					
관련사업 (예산항목)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운영 (일반사업) (사업기간 : 2023.1.1.~2023.12.31.)					
출장기간	2023. 3. 2. ~ 3. 6.			출장지	인도(델리, 바나라시)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3.2(목)	부산(07:00) → 인천(08:10)		항공 이동 인도 국제법 컨퍼런스 리셉션 참석		KE1406 KE0497
		인천(12:45) → 델리(18:20)				
	3.3(금)	델리		인도 국제법 컨퍼런스 발표(박영길) 및 참석 (발표주제 : 동중국해 해양관할권 문제)		
	3.4(토)	델리		국제법 컨퍼런스 참석(이서희)		교통편: 주최 측 제공
		바나라시		바나라스 힌두대학교 법대 세미나 참석 및 축사(박영길)		
	3.5(일)- 3.6(월)	델리(19:40) → 인천(06:00)		항공 이동		KE0498 KE1407
인천(09:30) → 부산(10:35)						
출장성과	○ 출장목적 달성 정도 - 인도 국제법학회 해양법 세션 발표 통한 학문적 교류와 인도 해양법 전문가와의 협력 ○ 주요 성과 - 한국정부의 인·태 전략과 연계하여 인도의 해양법·해양안보 전문가 및 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향후계획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 인도 국제법 전문가들의 KMI 주최 글로벌 오션 레짐 컨퍼런스에 참석 안내(자비 부담)하고, 일부 해양안보 전문가의 발표자 초청 검토 - 인도 국제법학회 참관기 국내학술지 게재(이서희)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 한국의 인·태 전략 실행에 있어 인도의 전문가 및 해양연구기관들과 협력 추진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인도의 해양법정책·안보 관련 전문가 및 싱크탱크들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검토 필요					

* 주요업무 수행 결과 별지 작성 후 첨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input type="checkbox"/>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주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행사 참가 <input type="checkbox"/>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input type="checkbox"/> 세미나, 교육, 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
업무①	인도 국제법학회 주최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참석 / 3월 3일(금) ~ 4일(토)
수행계획	- 박영길: 해양법 세션(사회: Neeru Chadha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내 "Fragile Stability of Maritime Legal Order in the East China Sea" 발표 - 이서희: 논의 동향 정리 및 네트워킹
수행결과	<div> <input type="checkbox"/> 해양법 세션: Law of the Sea: New Dimensions and Challen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2023.3.3.(금), 오전 10:00~12:00 - 장소: 인도국제법학회 대강당 - 발표: 1. 기조강연: P.S. Rao 박사(전 국제법학회(<i>Institut Droit International</i>) 전 회장 및 회원) 2. 김현수 교수(인하대), "Passage Conflicts in the South China Sea between US and China in the Law of the Sea" 3. 박영길 박사(KMI), "Fragile Stability of Maritime Legal Order in the East China Sea" 4. S.S. Parmar 대령(National Maritime Foundation), "Balancing UNCLOS in the Contemporary Security Environment" 5. Sunil Agarwal 박사(인도국제법학회), "India's Submission before CLCS: Issues and Challenges" 6. Utpal Kumar Raha 교수(St. Xavier's University), "Challenges to the Protection and Regulation of Submarine Cables: Strengthening Municipal Law as a Way Forward" 7. Atual Alexander 교수(WB National University of Juridical Sciences), "Prohibition of Piracy as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The Rare Car that left the Garage" 8. Ashutosh Acharaya 교수(University of Delhi), "Deep Sea Bed Mining and Its Impact on Marine Environment: Role of International Sea Bed Authority in the New Global Order" </div> <div> <input type="checkbox"/> 발표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현수 교수: 남중국해가 해양자원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로(SLOC)의 전략적 축으로서 기능함을 강조. 만약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양력을 확보하고 일방적인 통제를 가할 정도가 된다면, 이는 특히 미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해양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따라서,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할 경우 해양 갈등과 분쟁을 고조시키고,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상 통항제도의 안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임을 강조 - 박영길 박사: 동중국해는 4개의 어업협정과 1개의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라고 하는 잠정약 정제도에 의해 해양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 하지만, 이러한 질서는 매우 취약한 이유를 최근 중국의 해양팽창 정책, 일본의 적극적으로 변화된 해양정책, 해양관할권 질서의 복잡성(관할권 주장 중첩해역이 너무 많은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설명 - Parmar 대령: 인도는 12해리 영해, 30해리 접속수역, 200해리 EEZ를 가지고 있음(*접속수역의 폭이 24해리가 아닌 30해리인 점이 특히). 인도는 외국 군함이 영해 통과시 사전통고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유엔해양법협약상 안보환경은 크게 항행의 자유와 국가주권이라고 하는 두 축으로 구성되는데, 협약 조약에 대한 해석은 두 축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임 </div>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arwal 박사: 2009년 5월 인도는 아라비아해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 확장을 위해 CLCS에 부분 정보를 제출하였는데, 2019년에 CLCS의 심의에 들어갔음. 이에 대해 파키스탄은 인도와 Sir Creek에 대한 영유권 다툼과 그로 인한 해양경계획정 분쟁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CLCS가 심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음. 발표자는 이는 파키스탄이 인도의 심해저 자원개발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며, CLCS는 Sir Creek 문제와 CLCS의 과학적 역할 사이를 연결 짓지 말고, 인도의 정보제출에 대한 심리를 계속해야한다고 주장하였음 - Raha 교수: 글로벌 통신, 에너지 전송 및 해양과학조사를 촉진시키는 해저케이블은 대규모의 해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해양거버넌스에 대한 도전을 던짐. 연안의 해저케이블의 수리와 유지는 연안국의 관할권에 속함. 발표자는 국제법상 해저케이블에 관한 국가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 국내법을 검토하였음 - Alexander 교수: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으로서 해적행위 금지에 관해 발표. 2022년 유엔 국제법위원회(ILC)는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이후 미스테리로 남겨져 왔던 일반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개념에 관한 초안 결론을 제출하였음. ILC는 8개의 강행규범을 리스트로 제시하면서, 추후 다른 규범들이 강행규범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음. 발표자는 해적행위 금지가 강행규범으로 될 만큼 성숙되었다고 주장하였음 - Acharaya 교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제 선진국들은 심해저에서 자원을 추출하고 있거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만큼 발전하였음. 해저 자원의 개발과 관련 환경에 대한 관리에 대한 책무는 ISA가 지고 있음. 그런데 자원개발이 가시화될 수록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규제권한이 있는 ISA 하에서 해양환경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업무②	인도 해양안보·국제관계 연구기관 및 전문가 파악 / 3월 3일-4일(토)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의 해양안보·국제관계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을 파악하고 네트워크 구축 - 해양안보를 주제로 하는 2023년 Global Ocean Regime Conference에 발표자로 초청
수행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도 국제법학회 회장 및 관계자들 면담 (3일.금.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국제법학회 회장(Shri P.H. Parekh 교수), Surinder K. Verma 교수, M.K. Sinha 교수(부회장) 등 면담 - 인도 국제법학회 회장 등을 인도 국제법학회의 역사, 주요 활동들, 인도의 주요 국제법적 현안들과 회장의 한국 방문(2023.3월) 계획 등에 대해 논의 2. 인도 법학연구원 방문 (3일.금.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법학연구원을 방문하여 도서관 견학하고 원장과 면담함 - 인도 법학연구원은 학위과정(석사, 박사)을 두고 있으며, 역사 있는 저널을 발간하는 등 오랜 전통과 명성을 가지고 있음 □ 대학원생들과 간담회: 한국의 교육제도, KMI의 기능과 활동들, 해양법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 및 한국의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대학원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음 - 특히 많은 학생들이 여수해양법아카데미에 관심을 표하였음 3. 해양법 해양안보 전문가 네트워킹 및 국내 학술회의(GORC)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법 및 해양안보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GORC를 홍보하였음 - 특히 Raha 교수, Alexander 교수, Bisen 연구위원 등이 해양법 및 해양안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한국의 학술회의 참여에 대한 강한 바램을 표시함

업무②	인도 해양안보·국제관계 연구기관 및 전문가 파악 / 3월 3일-4일(토)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의 해양안보·국제관계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을 파악하고 네트워크 구축 - 해양안보를 주제로 하는 2023년 Global Ocean Regime Conference에 발표자로 초청 		
수행결과	<p>4. 바나라스 힌두 대학교 방문 (4일.금. 오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나라스 힌두 대학교(바라나시 소재)를 방문하여 인도 의회민주주의 75주년 기념 국가 세미나(National Seminar on 75 Years of Parliamentary Democracy in India: Retrospect and Prospect) 참석 (박영길 박사, 김현수 교수) - 개회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인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및 국제법에 대해 의견 나눔 - 바나라스 힌두 대학교는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인 동시에 규모가 가장 큰 대학으로서, 인도 중부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 		
사진	출장 관련 사진		
			
	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 발표	인도 국제법학회 회장 면담
			
	바라나스 힌두대학교 세미나	인도 법학연구원 간담회	인도 국제법 전문가들과 환담
			
	인도 법학연구원 방문	인도 법학연구원 간담회	인도 국제법학회 원로 집 방문

※ 참고자료(경비 세부내역)

- 1) 적용기준 : KMI 여비규정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중 나등급 적용
- 2) 국외출장 공무상 필요에 의해 로밍 신청(공무통화내역 사후 실비정산)
- 3) 여행자보험, 로밍이용 요금, 제수수료 등 : 실비정산
- 4) 현지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해외로밍비 신청
- 5) 현지 회의 개최 예정

* 예산항목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운영 (일반사업)

6) 체재비

출장자	체재비				비고
	숙박비	일 비	식 비	소계	
박영길	주최측 부담	(\$30X5일)X2=\$300	\$59 X 5일 = \$295	\$596	
이서희	실비정산	\$26 X 5일 = \$130	\$59 X 5일 = \$295	\$300	
합계				\$896	

* 숙박 : 주최 측 이용(예약) 호텔

* 박영길 : 항공마일리지 사용

- 재정정보시스템 내 일비 및 식비 자동 환율 계산 미적용으로 원화 수기 기입

* 박영길 - 일비: \$300=402,000원 / 식비: \$295=395,000원

* 이서희 - 일비: \$130=174,000원 / 식비: \$295=395,000원

- 환율 : 1\$=1,342.28원 (출장일 3.2 하나은행 최초고시 환율)

현재환율

기준일 : 2023년 03월 02일 고시회차 : 1회차 고시시간 : 08시23분45초

인쇄항목편집

조회시각 : 2023년 03월 10일 11시00분22초

통화	현찰				송금		T/C 사실때	외화 수표 파실때	매매 기준율	환가 료를	미화 환산율
	사실 때		파실 때		보낼 때	받을 때					
	환율	Spread	환율	Spread							
미국 USD	1,342.28	1.75	1,296.12	1.75	1,332.10	1,306.30	0.00	1,303.92	1,319.20	6.51414	1.0000

<별표 2>

국외출장여비 정액표

□ 국외출장여비

단위 : US\$

직 급		등급	일비	식비	숙박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자동차 운임	항공 운임
원 장		가	50	160	실비 (상한액: 389)	실비	실비	실비	실비 (Business Class)
		나	50	117	실비 (상한액: 289)				
		다	50	87	실비 (상한액: 215)				
		라	50	73	실비 (상한액: 161)				
부원장		가	40	133	실비 (상한액: 282)	실비	실비	실비	실비 (Business Class)
		나	40	99	실비 (상한액: 207)				
		다	40	72	실비 (상한액: 162)				
		라	40	61	실비 (상한액: 108)				
선임연구위원으로 최상위부서장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8시간 이 상 (Business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최상위부서장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연구직	선임연구위원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연구위원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직 급		등급	일비	식비	숙박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자동차 운임	항공 운임
	부연구위원	가	30	81	실비 (상한액: 176)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0	59	실비 (상한액: 137)				
		다	30	44	실비 (상한액: 106)				
		라	30	37	실비 (상한액: 81)				
	전문연구원 연구원	가	26	67	실비 (상한액: 155)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26	49	실비 (상한액: 123)				
		다	26	37	실비 (상한액: 90)				
		라	26	30	실비 (상한액: 77)				
행정직	책임행정원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선임행정원	가	30	81	실비 (상한액: 176)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0	59	실비 (상한액: 137)				
		다	30	44	실비 (상한액: 106)				
		라	30	37	실비 (상한액: 81)				
	전임행정원 행정원	가	26	67	실비 (상한액: 155)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26	49	실비 (상한액: 123)				
		다	26	37	실비 (상한액: 90)				
		라	26	30	실비 (상한액: 77)				

※ 최상위 부서장은 본부장, 부장, 감사실장을 의미

※ 직급별 자격기준

- 선임연구위원 : 박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선임연구위원인 자
- 연구위원 : 박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연구위원인 자
- 상기에 충족하지 못하는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위원으로, 연구위원은 부연구위원으로 기준 적용

※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구분 등급	대륙	국가 및 도시
가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도쿄, 홍콩, 싱가포르
	남·북아메리카주	뉴욕,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유럽주	런던, 모스크바, 파리, 제네바
	중동·아프리카주	-
나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출장 또는 체류예정지에서 상기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나 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